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9일 안양본원서 봉행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제 18회 수계대법회를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봉행한다.

남양주 봉선사 삼존불

10일 복장·21일 점안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는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공부에서 새로 조성한 삼존불 복장의식 법회를, 2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삼존불을 모시는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삼존불 복장의식 법회에서는 답양 율야사 수진 스님이 참여하여 작법 의식을 펼친다. 철안 스님은 "설법적인 정공부에는 삼존 불상을 하시는 비로자나불을, 율야 스님의 기념관이 들어설 서암에는 아미타불을, 그동안 어린이 법회 등 각종 법회가 열렸는데도 불단만 있었던 방적당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플 자율화운동 확산 될까?

기독교재단 송실대생, "종교자유 침해" 시정 촉구
종립대학 대부분 해당종교 필수과목 지정 '주목'

송실대학교의 채플(예배)교육이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승욱(컴퓨터학부 3학년) 등 송실대 학생 12명은 11월 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고 찬송하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기도를 행하는 등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며 학칙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 의식과 찬양행위에 참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침해이며,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음에도 학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학생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물론 강제적인 채플로 인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1월 6일 채플 자율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가운데는 학칙변경을 요구하는 이승욱 학생.

반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모두가 이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은 학교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에 학칙 시정 또는 변경을 명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칙 변경을 강제적으로 명명하는 것은 정부시책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학자연)은 교육당국의 소신있는 종교교과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사립학교의 선교 자유는 '교육'이라는 본질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허용돼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그 개선 책임이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관련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데 주저 없이 나서라"고 압박했다. 또 두 단체는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송실대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한 12명의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송실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71.5%에 달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7%의 학생들이 '종교의식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채플이 자율화되면 송실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는 22.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7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민주평통 종교인포럼

창립 발기인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함께하는 종교인포럼이 창립될 전망이다.

민주평통 종교위원회와 KCRP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또 이를 기념해 '동북아 평화와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평통 종교인포럼은 창립발기 취지문을 통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종교적 상황에서 민족사의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모든 종교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박경서 국제인권대사와 변진홍 KCRP 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태고종 사회부장 법륜 스님, 나해진 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 부위원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원주 고관화 박물관 축제

고관화에 관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의 장이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원주 명주사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1월 17~19일 고관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2회 원주 고관화 축제를 개최한다.

고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중국 고관화 특별전(17~19일), 한·중 고관화 학술대회(17~19일), 산사음악회(19일) 등 다양한 문화·학술 행사가 진행된다. 고관화 특별전에는 이제까지 접하기 힘들었던 한·중의 고관화 100여점이 전시되며 산사음악회에는 성악가 유미애씨, 인기가수 신범석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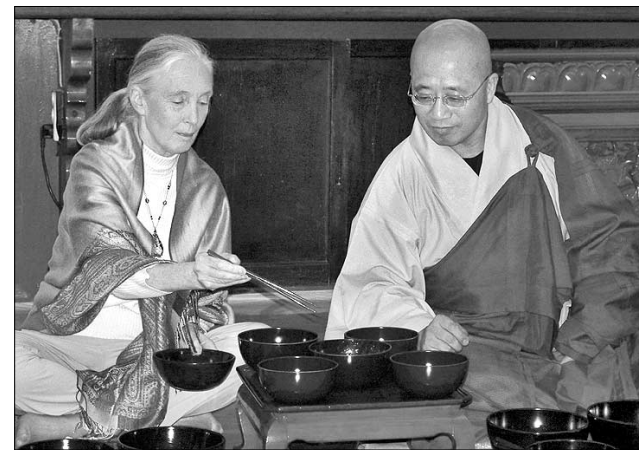
노병철 기자

김중헌씨 '조신의...' 대상

제3회 불교문화다지탈론펜츠 공모전 대상에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문 김중헌씨 작품 '조신의 꿈 그리고 애벌레'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11월 9일 부·실장스님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행한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우수상은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문의 최경씨 작품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와 캐릭터 부문의 최진주씨 작품 '안녕하세요? 부처님'이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회계사 주지 수경 스님이 제인 구달 박사에게 발우공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발우공양에 반했어요"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템플스테이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정성과 소중함을 가슴에 새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생명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72) 박사가 11월 8일 서울 화계사에서 서툰 젓가락질로 불교식 식사법인 발우공양을 체험한 뒤 밝힌 소감이다.

회계사 국제선원 무심 스님으로부터 발우공양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들은 그는 "정성·소중함 마음에 새겨" 기업과 일부 국가 국민들의 일

열심히 설명하는 무심 스님에게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은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달라며 초대 손님을 배려했다.

앞서 열린 '희망의 밥상' 강연회에서 구달 박사는 50여 불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아닌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은 수

질과 토양, 공기를 오염시키며 커머 얻은 대가인 데, 이마저도 다국적 기업과 일부 국가 국민들의 일이라는 것.

"유전자조작 식품과 대량 사육·학대로 키워진 동물들이 밥상에 오르는 것은 지구의 비극"이라는 구달 박사는 "아름다운 파괴에도 스스로를 회복하는 자연의 치유능력과 인간의 뛰어난 두뇌, 열정을 지닌 젊은이와 불굴의 인간정신이 있는 한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 희망은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봉영 기자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연구과정 개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성보박물관 문화대학이 연구과정을 개설했다. 연구과정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심화

반이다.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이뤄지며 현장 실습을 기본으로 한 경험 위주로 진행된다. 학제는 2학기(1학기 5개월) 월3회로 이뤄지며, 매년 3월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주 내용은 민화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 등. 한편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화대학은 2007년 3기생을 모집한다. (033)334-1817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11월 6일 서울 부암동 하립각에서 불교계 보수우익단체를 표방하며 불교뉴라이프가 창립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계종

대선 나선 불교뉴라이프

법규 위원장 전제, 부대선 나선 불교뉴라이프는 9일 회복지협위원장 혜총 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기인명단이 공개된 이후 일부 인사들이 "참여를 수락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있다"고 밝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 중에는 종교의 정치참여도 포함된다. 불교뉴라이프 창립준비위원장 장산 스님은 "내년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를 당선시

키는 것이 당면 목표"라며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밝혔다. 게다가 전국의 각 시·군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시화운동의 핵심 인사인 김진홍 목사와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직·간접적으로 뉴라이프전국연합과 관련돼 있다. 뉴라이프전국연합은 9일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뉴라이프전국연합과 기조는 같이 가지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불교뉴라이프의 해명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불교뉴라이프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로 인해 불교계가 아야할 부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안국선원, 美 하버드에 장학회 설립

5년간 기부금 50만불 조성

안국선원(원장 수불)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한국불교학 연구생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 안국선원은 10월 30일 하버드 세계종교학회 소장 도날드 스웨이어 교수 등 조계종 미동부승가회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화 연구를

위한 안국장학회(이하 안국장학회) 창립식을 봉행했다.

안국장학회의 이번 발족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안국선원은 앞으로 5년간 총 50만불의 기부금을 조성해 현지 대학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철우 기자

불교서울전문강당 제 3기 수학생 모집 안내

개설 취지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중단 최고의 강박 스님들을 모시고 전통 강연 교과목에 대한 총·재가자의 교육욕구를 해소하고자 원전 강의를 개설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님 뿐 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도 본 강당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승가교육의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취지를 두고 그 동안 1기와 2기생들을 원만히 배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 3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

- 1. 승려 : 총 50명 내외
구족계를 수지한 분종 비구·비구니 스님
2. 일반인 : 총 20명 내외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포교사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우대)

모집 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교육 시간 및 장소

- 1. 학제 : 2년제 4학기, 학기당 수업 32회
2. 수업시간 :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9시
3. 교육장소 : 법륜사(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수료자 특전

- 1. 사찰 주지인 경우 당해연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면제
2. 이년 이후 구족계 수지자인 경우 '2년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교사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2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 과정 (2년제 4학기)

Table with 5 columns: 학기, 과목, 교수사, 교수사 이력, 수업기간. Rows include 1st semester (초발심자경문, 의룡, 前 직지사 강주), 2nd semester (육조단경, 설우, 전국 선원수좌회 위원), 3rd semester (금강경, 통광, 쌍계사승가대학장), 4th semester (화엄경 1, 해남, 통도사 율주), 화엄경 2, 무비, 前 교육원장.

* 교수사, 교육일수, 수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소정양식) - 1부
2. 반영합판 사진 - 3매
3. 포교사인 경우 포교사증 사본 첨부
불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또는 수계증명, 불교교양대학 졸업증 사본 첨부

등록금

- 1. 스님 : 1학기당 700,000원
재가불자 : 1학기당 1,000,000원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입처는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접수기간

2006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조계종 교육원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 02) 2011-1810 Fax) 02) 732-4926
홈페이지 : http://www.buddhism.or.kr
E-mail : eunga@buddhism.or.kr

불기 2550(2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 화

